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67:1-7)

시편 중에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소위 유명시들이 있습니다. 가령 시편 1편이나 14편등은 많이 암송되는 시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67편은 중요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5권의 시편을 연구하는 가운데 67편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의 John Stott 목사는 그가 꼽는 사랑 받는 시편 37개 중 67편을 넣었습니다.

본편은 작자와 기록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나라 운동의 확산이라는 막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에게는 과거에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받을 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1.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3절).

위 말씀은 5절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실을 이방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2-25).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롭고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막 8:36). 이 말씀은 물질적 축복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했고,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약간 변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인칭 복수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그러나 선민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더욱더 위로부터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해서 당연히 복을 요구할 권이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민도 비선민과 무가치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일수록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을 모든 간구 앞에 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은총을 입어서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론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미소의 빛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앞

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만 느꼈을 뿐 사명감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신앙을 열방으로 확산하려고 생각하는 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신으로 연금시켰고, 하나님 예배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통신앙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찬양이 열방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의 예배 대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실로 혁명적 발상이요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롬 15:16). 바울은 자기 사역을 제사장 직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으로 성취된 직분입니다. “...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므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와 미래의 축복

6절에서 갑자기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과거 시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기 원하는 이들의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 과거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도 땅이 소산을 내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받을 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1절)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중 주의 얼굴을 보여 달라는 기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그 날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충분히 비춰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므로 그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경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3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열린프로그램 내일 개강

오늘 18기 찬양대양성반 개강-오후 1시30분 601호

3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및 열린프로그램이 내일(9월3일 월요일)부터 일정에 따라 일제히 개강한다.

목회자신학세미나는 32학기로 매 학기마다 전국 목회자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여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학기는 많은 목회자들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준비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대선후보 3명을 초청하여 '지도자의 비전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질의와 응답을 받는 순서도 있어 더욱 참여 열기가 높다.

열린프로그램은 지난 주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의 호응 속에 준비되고 있다. 우리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이 함께 성경공부도 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양강좌도 함께 개설한 것으로 학기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속에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오늘은 제18기 찬양대양성반이 오후 1시30분에 601호에서 개강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우리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7주 동안 찬양대원이 알아야 할 기초를 배우게 된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7 열린바자 오늘 점포추첨

- 찬양예배 후 510호 -

바자준비위원회(위원장 박두호 장로)는 오는 9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웃사랑 ·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2007열린바자의 점포추첨을 교구간사들이 오늘 한다.

예년의 예를 보면 각 교구마다 그 해 바자 매출을 좌우하는 점포 추첨에 크게 신경을 쓰며 점포장(교구장)을 비롯한 봉사위원들이 저마다 판매하기에 좋은 자리를 추첨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여왔다. 올해도 각 교구마다 좋은 장소를 배정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자못 기대가 크다.

또한 이번 바자를 위해 실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하였다.(· 재정부: 박두영 장로, 오승민 집사, 송인수 집

사, 김재성 집사, 은기장 집사, 김상열 집사, 안흥희 집사, 이정연 권사, 채경희 권사 · 시설부: 윤운식 집사, · 차량부: 장양일 집사, 김경한 집사, 배준길 집사)

한편 바자준비위원회는 이번 바자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귀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아끼는 것,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웃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좋은 일기 속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바자가 되도록 기도한다.

다락방 개학 특강

9월 5일(수) 1, 2부 예배 후 -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한 여름 무더위 기간에 잠시 방학을 하였던 다락방 모임이 다시 시작된다. 교구위원회(위원장 김영준 장로)는 다락방 개학(9월 7일, 금)을 맞아 특강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동안 느슨해진 다락방 식구들의 영적 긴장감을 환기시키며 새로운 각오로 하반기 다락방 모임을 갖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락방 개학 특강은 9월 5일(수) 1,2부 예배 후 1층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이종윤 목사**가 강사로 서며 '다락방 제도의 성경적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모든 다락방장과 부다락방장, 교구일꾼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2007년 하반기 다락방이 은혜 중에 원활하게 움직이기를 바란다.

아파트 전도 특별세미나

9월4일(화) 오전9시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강남노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전도 특별 세미나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 총회전도학교 특별강사)가 강사로 서 '아파트전도 방법론'을 주제로 강의한다.

성경통독사경회

9월24일(월)-25일(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성경통독사경회가 추석 연휴기간동안 열린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신약성경 전권을 범위로 하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신약성경 전체를 통독한다. 추석연휴 동안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는 소프라노 박정민-바리톤 이혁기 부부의 독창과 이중창으로 들려진다. 박정민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오페라과를 졸업 하였으며 장로회 신학대학 교회음악과를 졸업 하고 이태리 푸치니 음악원에 유학한 부군 이혁기 씨와 함께 공부 하였다. 이들 부부는 여러 오페라의 주역을 맡아 연주 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교회순방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는 신앙 깊은 부부 성악가 이다. 오늘 찬양 시간에는 Rossini 의 Stabat Mater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울며 서 있는 어머니) 외에 두 곡으로 찬양 드린다.

금주의 성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26-27)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Romans 8:26-27 [NIV])

비전2020운동-군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생명의 방어선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승권 목사(소령, 3사단 군종목사)

살림!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여러분과 담임목사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먼저 백골사단 출신이신 서울교회의 이종윤 목사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백골!

저는 백골사단(제3보병사단) 군종참모이자 사단사령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소령 장승권 목사입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87기로 94년도에 목사로 임직을 받은 후 오늘까지 군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 백골사단에 05.12.2일부터 전입하여 1년 9개월째 섬기고

있습니다. 사령부 삼성교회는 제가 전입 당시 40여 가정에서 지금은 65가정이 되었고(장교, 준사관, 부사관, 민간인), 어린이 주일학교는 35명에서 90여명이 출석하여 크게 부흥하였으며, 지난 8월19일에는 안수집사4분과 권사 4분의 임직식도 가졌습니다.

군종목사의 하루 일과도 여느 목회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의 새벽기도회, 심방, 병사교육, 상담, 그리고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 인도 등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군인교회도 매일 5시에는 어김없이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군을 위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한생명도 땅에 떨어

지는(자살)일이 없도록 생명의 방어선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대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죄 중의 죄이며, 이 역시 사탄의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성령님의 은혜로 전 백골부대 장병들의 생명을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 달라고 기도하여, 감사하게도 05년, 06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명도 자살사고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새벽기도회는 사단장 김 집사님도 참석을 하여 나라와 민족과 부대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참모회의 참석, 그리고 분대장 및 전입신병 교육, G.P, G.O.P 방문과 위문, Vision Camp(집단상담 프



로그램)등 부대활동과 병사 상담을 합니다. 일과 이후에는 교우들의 남편 퇴근에 맞춰 가정 심방을 합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제자훈련을 실시하며 주일에는 새신자반도 운영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신병교육대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전도와 진중세례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9회 실시, 총 1719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전체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들의(4055명 입소) 42% 해당하는 인원이며, 전체 인원 중, 세례를 받지 않은 2336명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을 평균 20%로 추정하면 500명 가량 될 것이며, 이를 다시 세례인원과 합하면 2200명으로

서 전체 훈련병의 50%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매우 높은 복음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도에 6번의 세례가 남아있는데 많은 훈련병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한 세례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이 매번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단예하의 연대 및 대대 급에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피아노, 프로젝터, 컴퓨터 등 많은 예배용 장비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위해서도 기

도와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교우 여러분!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형제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이들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7년 8월 22일
강원도 철원에서...

천국시민양성 - 주부대학 초대

21세기 여성을 위하여...

한상은 목사(주부대학 담임)

서울교회 주부대학에 초대합니다. 이번 학기로 14학기를 맞는 주부대학은 9월 4일(화) 오전 10시 경건회로 시작해 매주 화요일 교양강좌(90분)와 반별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11월 6일까지 계속 됩니다.

이번 학기 교양강좌는 신앙과 가정, 자녀교육, 건강, 식생활, 미용, 음악, 미술, 디자인 등을 주제로 교회 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뤄지며, 특별활동반으로는 방학 중에도 10여 명이 계속 모임을 갖는 독서(지도)반과 컴퓨터반, 스트레칭 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양강좌와 특별활동 모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뤄지는 만큼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서울교회 주부대학은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구마 캐러깅시다

우리 서울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목양교회 인근 2,700㎡(약 800평) 밭에 지금 고구마가 수확을 앞두고 한창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고구마는 금번 바자회에 출품하여 매출금 전액을 사랑의 집 설립 기금으로 드리기를 위하여 몇몇 성도들이 뜻을 모아 지난 봄부터 심고 가꾸어 온 것으로, 이 지역의 토질이 비옥하여 양질의 고구마 수확이 예상됩니다.

바자회 일정에 맞추어 9월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재배면적이 넓어서 고구마를 캐고 순을 따고 포장하는 일에 봉사할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서울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됩니다.



2007 바자를 준비하며...

바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 열린 바자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바자 품목 선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등장하여 대박을 터뜨린 생과일주스는 여전히 3교구의 다크호스로 자리잡고, 미처 부치기도 전에 판매가 완료 되었던 11교구의 동그랑땡, 울해는 좀더 풍부한 물량을 기대해 봅니다. 8교구에서는 송편을, 4교구에서는 절인 배추를 판다고 하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참으로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밖에 남선교회의 고구마선교회에서 재배한 무공해 고구마와 고구마순은 벌써부터 예매가 시작되었고,

농어촌교회에서 직송되는 과일, 고추, 마늘, 쌀, 참기름, 들기름 등은 서울교회 바자의 상징이며 전액 기증품인 LG 가전제품과 수입화장품 등이 성도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의 수고의 땀이 듬뿍 뻗어 먹거리와 전액 기증품은 그야말로 바자의 "꽃"이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7바자 특별 이벤트인 이종윤 목사님의 저서를 직접 사인 판매하는 행사가 13일(목) 오후 2시 한티공원에서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바자에 직접 참여하시는 이목사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에 안성맞춤인 열린음악회는 14일(금), 오후 2시 만나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글로리아 중창단, 아벤 관현악단, 트럼펫 연주 등이 있을 이번 음악회는 초청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주어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자위원회에서는 상품 구입시 100% 쿠폰(상품교환권) 사용을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쿠폰을 구입하여 이웃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전도의 기회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처는 행사장 곳곳에 설치되어 구입이 용이할 것입니다. 성도여러분께서는 질서 있는 진행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2007 바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시민양성

서울 아기사랑 연주회

임대중 집사(9교구)

"아빠? 기타 연주하고 있어?" "응. 오늘 음악회에서 큰아빠랑 연주할꺼야." "아빠? 하린이(하린이) 기타는 어딴?" 22개월된 딸아이에게는 아빠가 기타 연주하는 것보다 아빠와 똑같은 기타를 가지고 싶기도 하고 줄도 뿜겨보고 싶은 마음인가 봅니다.



다. 영권이에게는 엄마의 찬양소리가 천사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아빠와 큰아빠가 무대에 나와 인사를 하자 하린이는 아빠한테 가겠다고 엄마품을 벗어나려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는 모두들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염려도 되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동안 취미생활과 전공으로 해왔던 재능들을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하나님께 펼쳐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태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예매가 끝나고 '서울 아기사랑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로 조금은 산만한 분위기가 유인이 아빠의 너무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클래식기타 연주소리에 금새 조용해집니다.

해라, 해운 자매는 아빠의 색소폰 연주를 잘 듣기 위해 제일 앞자리에서 귀를 쫓긋 세웁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다른 아이들의 눈도 해맑게 빛이 납니다.

은식은 엄마가 플룻 연주를 하는 동안 엄마를 지켜봅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지금 무대 위에 서서 악기를 연주하는 엄마, 아빠가 최고로 보일 것입니

다. 영권이에게는 엄마의 찬양소리가 천사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아빠와 큰아빠가 무대에 나와 인사를 하자 하린이는 아빠한테 가겠다고 엄마품을 벗어나려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는 모두들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염려도 되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켜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욱이 엄마가 나와 해금을 연주합니다. 두 줄 사이를 활이 움직이자 조금은 생소하면서도 은은한 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대위에선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 앞으로 다가서는 아이들처럼 나의 마음도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촐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 '서울 아기사랑 음악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아래 계속 되었으면 하고 기도해 봅니다.

바자위원회 홍보부

등정

- 이종윤 목사는 6일(목) 복음신앙동교회 모임을 갖고, 총회장 로교육원 특강을 한다. 7일(금) 북한구원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8일(토) 장로교신학회 11회 학술 발표회를 갖는다.
- 10교구 권장환 집사 윤영남 집사 차녀 권민정 양 미국 수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워싱턴 DC 볼티모어시 Fall Road Animal Hospital 근무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 (9.2) 한나전도회(9.9)
- 금주의 식사: 임송자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매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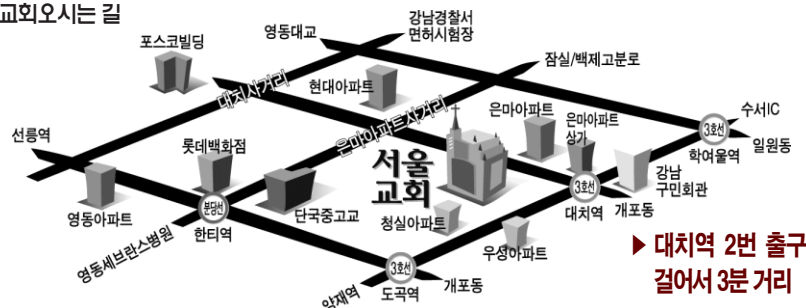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매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매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매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매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3. 디락방마다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지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